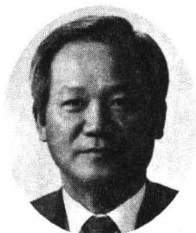


“기업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각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풍토로 만들어 갈 것”



親愛하는 勞動部 公務員 여러분!

傘下團體 任職員 여러분!

그리고 全國의 千萬勤勞者와 企業人 여러분!

노동부장관 **崔秉烈**

希望이 넘치는 辛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家庭에 榮光과 辛運이 가득하시기를 眞心으로 祝願합니다.

새로운 希望과 意慾을 가지고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本人은 勞動行政의 責任者로서 올 한해가 “恒久的인 産業平和定着”의 해가 되기를 간곡히 祈願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勞動部 公務員을 비롯한 모든 勞動家族이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충력을 기울이겠다는 굳은 覺悟와 다짐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變革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思考와 새로운 利害에 따라 엄청난 構造 改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體制와 과거의 思考로는 도저히 豫測할 수 없는 大轉換이며 그 누구도 滔滔한 이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불과 1年餘前만해도 東西對決의 상징이었던 베르린 障壁이 순식간에 무너져 統一된 獨逸이 탄생되었는가 하면 社會主義 중주국인 소련이 共產主義 이념을 포기하고 市場經濟를 도입하는 등 개혁과 개방을 향하여 급속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世界秩序의 변화에 能動的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政府는 일찍부터 北方外交를 추진하여 소련, 헝가리, 체코 등과 國交正常化를 실현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盧泰愚 大統領이 共產主義 宗主國인 소련을 방문, 양국 頂上會談을 가진 것은 이러한 우리 政府의 능동적인 外交的 노력의 결실이며, 이 회담은 비단 한·소간의 友好增進뿐 아니라 전후 45년간의 冷戰體制를 종식시키는 世界史的인 巨步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춘 우리의 노력은 마침내 남북한 高位級 會談을 비롯한 체육, 음악 등 文化交流를 성사시켰으며, 이러한 남북간의 접촉은 남쪽의 따뜻한 自由의 바람을 북쪽으로 불게하여 우리겨레의 지상염원인 統一을 앞당겨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世界秩序와 남북간의 변화는 올해에도 더 빠른 속도로 進展되어 갈 것이며, 그 結果는 누구도 豫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國際的 位相을 공고히 하고 名實相符한 선진국으로 跳躍하여 남북이 통일된 국가가 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經濟發展과 온 국민의 단합된 國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産業平和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89年 下半年 이후 어려운 經濟現實에 대한 국민의 認識과 근로자의 자제 및 사용자의

自己革新的 노력, 그리고 정부의 遵法秩序 확립 의지 등이 어우러져 90년도에는 勞使紛糾 건수가 전년대비 80% 줄어든 300건대에 머무르고 紛糾의 양상도 穩健化 되는 등 勞使關係 安定霧圍氣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반적인 勞使關係 현실은 아직도 새로운 價値秩序와 관행이 축적되지 못한 轉換期的 狀況으로 불안요인이 尙存하고 있는 한편, '89년 이후 계속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91년에도 持續될 것이라는 展望이 支配的이어서 우리 경제는 더 이상 勞使紛糾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堪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國民經濟의 지속적 발전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先決課題이며 이는 政府만의 과제라기 보다는 勞·使 當事者는 물론 우리국민 모두가 智慧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宿題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勞動行政의 과제는 항구적인 產業平和의 정착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을 선도해 나가고 정부의 역할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勞使關係의 安定을 위하여 합리적 勞使慣行의 정립을 통한 올바른 노사관계의 질서를 構築하고자 합니다. 6. 29 이후 우리 노사관계는 제자리를 찾기 위한 진통을 겪으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왔으나, 勞使協調 분위기는 아직 선진적 노사관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노사관을 確立하고 산업현장의 具體的 규범을 정립하며, 기업의 勞使管理 改善를 적극 유도하고 노사관계 法秩序를 確立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同伴者的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의 認識을 轉換하기 위하여 韓國勞動教育院 등을 통하여 勞使教育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우리 產業社會의 현실에 알맞는 勞動運動의 기본이념을 정립하여 널리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대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노사협의회를 실질적 협의기구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紛糾發生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분규를 早期에 收拾하기 위하여 분규 다발업체를 중심으로 脆弱業體를 선정, 집중관리하고 紛糾 收拾機動班을 편성하여 주요분규에 대한 早期收拾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勞動爭議의 신속,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勞動委員會 기능도 확충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충실히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우리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內外的인 여건에 비추어 과도한 賃金引上 要求를 자체 토록 하면서 物價安定 특히 생필품 가격과 住居環境 개선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勞使團體간의 이해와 共感帶 形成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합리적 賃金決定을 위한 각종 統計資料를 발간, 배포하는 등 원만한 交涉을 위한 霧圍氣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活力을 되찾을 수 있도록 公共部門과 대기업 등 고임금 업종이 賃金安定에 솔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적금 임금제도의 확산을 적극 유도하여 그간의 經營實績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응한 成果가 配分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產業間 人력흐름을 效率的으로 재조정하여 人力需給 불균형에 따른 賃金引上 부작용을 最小化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셋째, 政府는 당면한 각종 建設工事와 제조업 생산직 人力難을 타개하기 위하여 技能人力과 단순생산직의 供給을 대폭 확대하고, 隘路部門에의 취업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政策手段을 강구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산업수요에 부응한 技能人力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중에 公共訓練院 3개소를 開院하고 2개훈련원의 新設을 추진하겠으며 훈련과정도 企業의 現場實習訓練과 연계시키고 失業者 雇傭促進訓練을 내실화할 것이며, 사업체에서 소요인력을 스스로 양성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訓練義務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地方自治團體 및 교육기관에 求人·求職 창구를 개설하여 전국 職業安定網과 연계시키는 등 勞動市場에서의 취업정보체계를 확충하고 대졸자 등 專門人力을 대상으로 한 취업情報센타의 운영도 활성화하여 勞動市場의 정상적 흐름을 促進할 계획입니다.

네째로, 그동안 勤勞時間 단축 등 勤勞條件의 지속적 改善과 꾸준한 賃金引上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生活水準은 별로 향상되지 못했다는 勤勞者들의 불만이 있는 가운데 일부계층의 과소비, 不動產 投機 등으로 상대적 貧困感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政府는 주택문제 해결 등 근로자들의 勤勞意慾을 고취시키는 士氣振作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근로자 住宅供給事業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91년중 8만호의 근로주택을 건설, 분양하고 특히 宅地難 해소를 위하여 그린벨트를 제외한 自然綠地 및 경지 지역에서의 社員賃貸住宅건설을 허용할 것이며, 근로자용 寄宿舍를 건립하고자 하는 中小製造業에 대하여는 建築費의 80%까지 支援하는 제도를 설정하여 기업의 投資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公共福祉施設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금년중에 1千世帶의 미혼여성 賃貸아파트와 5개소의 勞動福祉會館과 3개소의 示範託兒所와 勤勞靑少年會館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産業災害率은 동남아 공업국보다 높은 가운데 근로자 所得水準 향상에 따라 作業環境改善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므로 금년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건설현장에 대한 安全保健管理實態 점검, 노후화학공장 및 화약류제조업체에 대한 安全點檢 등을 통하여 건설, 화학업종 등 災害 多發分野를 집중 지도할 계획이며 그리고 기업내 安全保健管理體制를 구축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각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풍토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재해근로자 보호를 확대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시설을 확충하고 재해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및 생활정착금 대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노력은 노사의 자주적인 노력 및 적절한 역할분담과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산업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선진노사관계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사관계에 대하여 前向的, 自己改革的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勤勞者는 민주적 노동운동의 리더쉽을 培養하는 등 노동운동의 遵法風土를 확립하고 현재의 國民經濟 狀況을 고려하여 욕구를 자제하면서 생산성향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가족 여러분!

6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고 7차 5개년 계획의 기틀을 닦는 금년에는 과거의 귀중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國內·外 情勢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勞·使·政의 합리적인 役割分擔을 통하여 각자 맡은 분야별로 責任을 다해 우리 모두 智慧를 모아 勞·使 自律에 의한 恒久的인 産業平和를 이룩함으로써 '90년대 제2의 經濟跳躍을 기필코 달성합시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福이 항상 充滿하기를 다시 한번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